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6, No. 140, pp.123-158
<https://doi.org/10.29212/mh.2026..140.12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기획 4

한국전쟁 참전 프랑스 대대의 전투력 분석

- 외인부대 전통 “카메론”의 발현을 중심으로

최해욱 | 해군OCS장교중앙회

- 목 차
1. 서론
 2. 카메론 전통의 개념과 분석틀
 3. 카메론 전통의 전이 메커니즘
 4. 주요 전투에서의 카메론 발현 양상
 5. 결론

초 록 본 논문은 한국전쟁(1950~1953) 프랑스 유엔 대대(BF/ONU) 전투력의 제도적 원천을 분석한다. 기존 연구는 몽클라르의 지휘력과 자원자들의 사기로 프랑스 유엔 대대의 전투력을 설명해 왔으나, 이들의 전통이나 제도적 원천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1951년 2월 쌍터널 전투에서 포위된 외인부대 하사의 증언 ‘이제 카메론을 할 수밖에 없다’에서 출발하여 네 가지를 분석한다. 첫째, ‘카메론’이 가리키는 세 요소, 1863년 카메론 전투에서 기원한 ‘행동기준’, Legio·patria·nostra의 ‘군단 귀속 정체성’, 외인부대 전사를 통해 축적된 ‘전술적 실행능력’을 분해한다. 둘째, 1948~1950년 외인부대 감찰관으로서 22,500명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최고 권한자였던 몽클라르라는 ‘매개자’를 통한 ‘지휘 경로’를 추적한다. 셋째, 지원제 편성이라는 ‘선택 경로’, 그리고 제3중대라는 ‘결절점’이 자리한 ‘편성 경로’를 거쳐 작동하는 전이 메커니즘을 살펴본다. 넷째, 원주·쌍터널·지평리·단장의 능선 네 전투에서의 반복 발현 양상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SHD 아카이브 자료, 몽클라르의 『전투 교리문답』 2002년 출판본, 외인부대 한인전우회장 및 몽클라르 아들과의 구술 인터뷰(2026년 6월)를 종합한다. 분석 결과, 리지웨이 장군이 ‘최고의 군인들’이라 평가한 프랑스 유엔 대대의 초기 전투력은 1863년 이래 외인부대가 축적해 온 ‘카메론’의 발현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인다. 이 논문은 병사 자신의 언어에서 분석틀을 발굴하고, 1953년 몽클라르의 강연 원고와 구술 자료를 새롭게 활용하여 전이 메커니즘을 모델화함으로써, 프랑스 유엔 대대의 전투력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한국전쟁, 프랑스 유엔 대대(BF/ONU), 프랑스 외인부대, 지평리 전투, 카메론

1. 서론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38선 전역에 걸쳐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82·83·84호를 연속 채택하여 유엔군 구성과 회원국의 전투 병력 파견을 결의했다. 프랑스는 1946년부터 진행 중이던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 상당한 병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었다. 본토의 정규 사단을 추가로 한반도에 파병할 여력은 사실상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가 선택한 방식은, 지원자만으로 구성된 프랑스 유엔 대대(Bataillon français de l'ONU, 이하 프랑스 유엔 대대)의 파병이었다. 훗날 이 자원대대의 편성은 단순한 병력 충원 방식의 결정이 아니라, 프랑스 유엔 대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출발점이었다고 기록된다.¹⁾

이 부대에 대해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장군은 1952년 5월 미 의회 합동회의 연설에서 “미국과 프랑스가 전사에서 배출한 최고의 군인들과 모든 면에서 견주어 손색이 없었다”고 평가했다.²⁾

1) QUISEFIT, Laurent, 「Les volontaires du Bataillon français de Corée: profils et engagements」, in CHABANOL, Elisabeth(dir.), 『Souvenirs de Séoul: Destins croisés France-Corée de 1886 aux années 1950』(Paris: L'Atelier des Cahiers/EFEO, 2019): 74-97.

2) RIDGWAY, Matthew B., 「Text of Gen. Ridgway's Report to Congress on Korea and Japan」, 『The New York Times』, 1952년 5월 23일 (<https://www.nytimes.com/1952/05/23/archives/text-of-gen-ridgways-report-to-congress-on-korea-and-japan.html>), 접속일 2026년 6월 30일. 원문: “I want to record here my conviction that these American fighting men with their French comrades in arms measured up in every way to the battle conduct of the finest troops America or France has produced

프랑스 유엔 대대에 관한 연구는 한국전쟁 후 참전자의 회고에서 출발하여 점차 단행본·학술 연구로 축적되어 왔다. 초기에는 참전자·종군 작가의 서사적 서술이 중심을 이루었는데,³⁾ 이후 프랑스 유엔 대대를 전면적으로 다룬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⁴⁾ 미육군 공식 전사 역시 쌍터널·지평리 전투를 서술하였고⁵⁾ 군사학 연구자료들이 프랑스 유엔 대대가 수행한 전투의 작전적 의미를 분석하였다.⁶⁾ 그러나 이렇게 누적되어 온 연구들은 개인적 자질(지휘관의 역량, 자원자의 사기)과 상황적 요인(포위, 수적 열세)을 묘사하는 데 그치며, 전투력의 제도적 원천에 대한 분석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⁷⁾

그런데 이 공백을 메울 단서는 전투 양상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원주·쌍터널·지평리·단장의 능선으로 이어지는 프랑스 유엔 대대의 전투는 매년 ‘극한 상황 → 결전적 저항’이라는 거의 동

throughout their national existence.”

3) BOUTTIN, Jacques, 『Bataillon Monclar』(Paris: Éditions du Scorpion, 1961); ROY, Jules, 『La bataille dans la rizière』(Paris: Gallimard, 1953); ROSSI, Michel, 『Avoir vingt ans à Chipyong-Ni』(Courbevoie: Remicom, 1994).

4) BERGOT, Erwan, 『Bataillon de Corée: Les volontaires français 1950-1953』(Paris: Presses de la Cité, 1983).

5) MOSSMAN, Billy C.,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0).

6) HAMBURGER, Kenneth E., 『Leadership in the Crucible: The Korean War Battles of Twin Tunnels and Chipyong-ni』(College Station: Texas A&M University Press, 2003); HAMBURGER, Kenneth E., 『Le rôle du ‘Bataillon de Corée’ dans la guerre de Corée』(trad. Magalie Martin-Arellano), 『Revue historique des armées』 n°246(2007): 65-76.

7) 본 논문이 분석하는 ‘전투력’은 화력·편제·군수 등 물적 요소 전반이 아니라, 프랑스 유엔 대대가 포위·수적 열세와 같은 극한상황에서 발휘한 정신적·제도적 원천에 한정된다. 이는 전투력 개념 전체를 규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구가 충분히 다루지 않은 제도적 차원에 초점을 맞춘 분석적 선택이다. 여기서 ‘제도적’이란 공식 규정뿐 아니라, 의례·조직 구조·지휘 경로를 통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전통과 행동 규범 전체를 가리킨다.

일한 양상을 보인다. 동일한 패턴이 네 전투에서 반복되었다는 사실은, 그 배후에 어떤 제도적 틀이 작동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그 틀에 대한 단서는 당시 전장의 포위망 속에서 분투했던 한 병사의 증언에서 나온다. 이는 프랑스 유엔 대대가 지닌 정신전력과 육체적 강인함을 규명한 최근의 연구 논문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이다.⁸⁾

1951년 2월 1일, 쌍터널(Twin Tunnels) 인근에서 중공군의 압도적인 포위망에 갇힌 외인부대(Légion étrangère) 출신 하사 한명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이제 ‘카메론’을 할 수밖에 없다.”⁹⁾

이 표현은 외인부대 내에서 통용되는 ‘군사적 은어’였으나, 생사의 기로에 선 병사들의 전의를 자극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패전과 함락을 코앞에 둔 위급한 상황에서 카메론이 소환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승리의 전조가 아니라 최후의 결전적 저항임을 보여준다.¹⁰⁾

이 논문은 기존에 주목하지 않던 언행과 의례를 사료화했다는 점에서 동일 연구 분야의 최전선에 서 있는 성과다. 그러나 이를

8) SILVA DA CRUZ, Amal, 『De la robustesse du combattant: le bataillon français de l'ONU en Corée entre 1950 et 1953』(Université Paris 1 Panthéon-Sorbonne: 박사학위논문, 2023), [HAL: tel-04166876].

9) SHD, GR7U292, dossier Rapports d'opérations des Combats de Chipyeong 1951, 「Affaire du 26 janvier 1951」, Corée, 1951: 1.; MOUSSET, Paul, 『Parallèle 38』(Paris: Gallimard, 1951): 244.

10) PORCH, Douglas, 『The French Foreign Legion: A Complete History』(New York: Macmillan, 1991): 193-222. ‘카메론을 한다(Faire Camerone)’는 고립된 극한의 전장 속에서 항복 없이 진지를 사수(死守)하는 ‘결전(決戰)적 저항’을 뜻하는 외인부대의 전통적인 표현이다.

‘전투원 개인의 강인함’이나 ‘부대원들 간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라는 차원으로만 평면적으로 해석해 낸 한계를 지닌다.¹¹⁾ 이러한 해석은 그 발언과 의례가 어디서 비롯되어 어떤 경로로 병사들에게 전달되었는가, 즉 전투력의 제도적 원천과 전이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전쟁 초기 프랑스 유엔 대대의 전투력을 외인부대의 제도화된 전통인 카메론이 특정한 경로를 통해 이식·전이되어 반복적으로 재현된 결과로 설명하고자 한다.¹²⁾

이를 위해 카메론이라 부른 그 틀의 역사적 형성(2장), 그것이 프랑스 유엔 대대에 도달한 경로(3장), 그리고 네 전투에서 반복 호출된 양상(4장)을 순서대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세 가지 유형의 자료와 방법론을 복합적으로 활용한다.

첫째, 문헌 분석이다. 프랑스 국방부 역사 문서고(Service Historique de la Défense, 이하 SHD)의 사료와 관련 기록·문헌을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논증의 사료적 토대를 구축한다.

둘째, 내부자 관찰이다. 내부자 관찰로 표시된 서술은 저자의 프랑스 외인부대 복무 경험에 기반하며, 문헌으로 검증되는 항목에 한해서만 보강으로 활용된다. 내부자 관찰만으로 뒷받침되는 독자적 주장은 제기하지 않는다.

셋째, 구술 인터뷰이다. ‘외인부대 한인전우회장(Amicale des Légionnaires d’Origine Coréenne, 이하 전우회장)’과의 인터뷰

11) SILVA DA CRUZ, 앞의 책(2023): 415-416. 실바는 베르핑을 겪는다는 것은 전쟁을 극단적으로 감내하는 것(subir)이며, ‘카메론을 한다’는 것은 최후까지 저항하는 것(résister)이라며 두 개념의 본질적 차이를 인지했다. 본 논문은 실바가 제시한 ‘국가적 서사(베르핑)’와 ‘군단 귀속 정체성의 행동 기준(카메론)’의 구조적 차이를 전면적으로 분석한다.

12) 본 논문에서 ‘카메론’은 1863년 전투, 그 기념일, 그리고 ‘faire Camerone’라는 관용구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지칭으로 사용하며, 이 중 세 요소가 결합된 분석 대상은 2장에서 ‘카메론 전통’으로 별도 명명한다.

는 카메론이 외인부대 복무자들에게 어떻게 전달·재해석되었는지를 보여준다.¹³⁾ ‘몽클라르 아들’과의 인터뷰에서는 몽클라르의 생전 신념과 행동의 연속성을 가족 구술을 통해 확인한다.¹⁴⁾

구술사 및 참여 관찰은 군사사 연구에서 점차 통용되는 방법론이나, 표본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독립적 증거가 아닌 해석적 보강으로만 활용한다.¹⁵⁾

2. 카메론 전통의 개념과 분석틀

가. 카메론 전투

첫 번째 요소는 ‘카메론 전투(Bataille de Camerone)’ 자체이다. 1863년 4월 30일, 멕시코 원정 중이던 프랑스 외인부대 제3중대 65명이 약 2,000명의 멕시코군에게 포위됐다. 지휘관 당주(Jean Danjou) 대위는 거듭된 항복 권유를 거부했다. 전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졌다. 전투 막바지, 거동할 수 있는 외인부대원 5명은 최후의 일제사격 후 총검 돌격으로 응했고, 이를 본 멕시코군 지휘관은 항복을 권유하며 생존자들이 무기와 부상자를 그대로 거둘 수 있도록 허락했다.¹⁶⁾

13) 안영균, 외인부대 한인전우회 제11대 회장(외인부대 25년 복무), 구술 인터뷰, 파리 포르 드 노정, 외인부대 총회, 2026년 6월 10일. 한국어로 진행, 저자 직접 채록.

14) MONCLAR, Roland, 구술 인터뷰, 파리 16구 자택, 2026년 6월 11일. 프랑스어로 진행, 저자 직접 채록·번역.

15) U.S. Army, 「Guide to Oral History」 (<https://history.army.mil/Research/Reference-Topics/Army-Guide-to-Oral-History/>), 접속일 2026년 6월 30일.

16) PORCH, 앞의 책(1991): 193-222. 이 전투는 나폴레옹 3세가 개입한 제2차 멕시코 원정(1861~1867) 중 발생했다. 당주 대위가 지휘한 부대는 프랑스군의 군자

이 사건은 외인부대에 임무완수가 최우선이라는 ‘행동기준’을 남기고, 매년 4월 30일 카메론의 날로 제도화되어 현재까지 계승된다. 카메론의 날은 단순한 기념식을 넘어 이 행동기준을 외인부대원들의 정신 속에 새겨 넣는 과정이다.

이 제도화된 틀 안에서 죽음까지 유지되는 약속에 대한 충성과 헌신은 개개인을 초월한 공동의 토대로 상징화되고, 병사들은 극한 상황에서도 임무 완수를 위한 결전적 저항이라는 행동기준을 따르도록 훈육된다.¹⁷⁾ 이 행동기준은 ‘외인부대 복무규율’의 제6조 ‘임무는 신성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수행한다’로 명문화되어 있다.¹⁸⁾

나. 군단 귀속 정체성

두 번째 요소는 ‘군단 귀속 정체성(Legio · patria · nostra)’이다. 카메론 전투가 새긴 행동기준이 외인부대 전체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토대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외인부대는 1831년 3월 10일, 프랑스 국왕 루이 필리프 1세의 칙령으로 창설됐다. 해산된 스위스 근위대와 호엔로에(Hohenlohe) 연대를 모체로, 창설 초기에는 독일 · 이탈리아 · 폴란드 출신이 주를 이뤘다. 이들 대부분은 1830년 7월 혁명 이후 프랑스에 정치적

금 호송대가 무사히 이동할 수 있도록 멕시코군을 상대로 근처 농가(아시엔다 카메론)에서 마지막까지 항전했다.

17) NEVIASKI, Alexis, 「La cohésion légionnaire, un défi toujours actuel」, 『Guerres mondiales et conflits contemporains』 n°237(2010): 97-98.

18) Armée de Terre(프랑스 육군, 공식), 「Code d'honneur de la Légion étrangère」(<https://www.terre.defense.gouv.fr/legion-etrangere/presentation/code-dhonneur-legion-etrangere>), 접속일 2026년 6월 17일: 제6조. 원문: “La mission est sacrée, tu l'exécutes jusqu'au bout, à tout prix.”

망명처를 구했던 자들로, 돌아갈 나라가 없거나 돌아갈 수 없는 처지였다. 여기서 외인부대 정체성이 형성됐다. ‘국가’ 대신 ‘군단’을 조국으로 삼는다는 ‘군단 귀속 정체성’이다.¹⁹⁾

1920년 외인부대가 ‘국가’라는 단어를 제외한 ‘명예와 충성’이라는 표어를 채택한 것은 장병들의 충성 대상을 국가에서 군단 자체로 이전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군단은 구성원들의 충성이 향하는 공식적인 대상, 즉 고유한 인격을 획득하게 되었다.²⁰⁾

이 정체성은 프랑스 유엔 대대에서도 관찰됐다. 대대는 다양한 군사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졌는데,²¹⁾ 그중 외인부대 출신은 자신의 가족적 정체성에 강하게 애착을 지닌 집단으로서, 단순히 신분만이 아니라 ‘존재 방식’으로도 스스로를 규정했다.²²⁾

이 존재 방식은 외인부대 복무규율 제2조에 각 외인부대원은 국적·인종·종교에 관계없이 형제전우이며, 각 구성원을 묶는 연대를 보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군단 귀속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²³⁾

19) PORCH, 앞의 책(1991): 96-127, 376.

20) NEVIASKI, 앞의 글(2010): 99. 원문: “La Légion possède donc officiellement une personnalité propre qui marque profondément la mentalité de ses membres.”

21) MONCLAR, Ralph, 「Conférence Monclar」(몽클라르 강연 원고, 1953년 3월 16일), 롤랑 몽클라르(Roland Monclar) 기증, 유엔 프랑스 한국전쟁참전협회 소장, 국가보훈부 유엔참전용사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번호 2024001400(<https://unarchives.mpva.go.kr/arch/detailDoc/2024001400/docP1>), 접속일 2026년 6월 21일: 6. 원문: “프랑스의 엘리트 부대, 기습 부대, 낙하산병, 외인부대, 제2기갑사단, 자유 프랑스군, 인도차이나반도 (Indochine) 참전군이 충력을 다했습니다.”

22) SILVA DA CRUZ, 앞의 책(2023): 253. 원문: “Le bataillon français réunissait diverses origines militaires telles que la Légion étrangère, fortement attachée à son identité familiale, ne se définissant pas seulement par son statut, mais par aussi ‘une façon d’être’.”

23) Armée de Terre, 앞의 사이트(2026): 제2조. 원문: “Chaque légionnaire est ton frère d’armes quelle que soit sa nationalité, sa race ou sa religion. Tu lui manifestes toujours la solidarité étroite qui doit unir les

【내부자 관찰】 오바뉴(Aubagne) 모병소에서 선발 직후부터 훈련 전 과정에 걸쳐 정체성을 바꾸는 절차들이 이어진다. 교관들은 반복해서 ‘레지오네르(Légionnaire)²⁴⁾로서의 존재 방식’을 신병들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체화시킨다.

군단 귀속 정체성은 이런 구체적인 절차를 통해 전달됐다. 국적을 내려놓는 의식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정체성을 국가에서 군단으로 전환시키는 장치였다.

【전우회장】 “처음에 30여 개국의 신병들이 모인 내무반에 마지막에 남은 이들은 ‘레지오네르’였습니다. 국적 대신 다른 소속감이 생긴 것입니다.”²⁵⁾

다. 전술적 실행능력

세 번째 요소는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전술적 실행능력’이다. 군사학적 관점에서 이 능력은 지속적 체력단련과, 이를 실전에 투사하는 전투 경험지(經驗知)를 함께 의미한다.

외인부대가 창설된 이래 전세계의 거친 전장에서 축적해 온 이 전투 경험지는 화력 지원이나 보급이 제한된 극한의 전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체력과 총검뿐만 아니라 사방에 존재하는 모든 도구와 수단을 근접전에 투사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식으로 나타난다.²⁶⁾

membres d’une même famille.”

24) 라틴어 Legionarius에서 유래한 용어로, 현대 프랑스어에서는 주로 외인부대원을 의미함, CNRTL (Centre National de Ressources Textuelles et Lexicales), Dictionnaire de l’Académie française (9e édition).

25) 안영균, 앞의 인터뷰(2026).

26) PORCH, 앞의 책(1991): 102, 202. 외인부대에서는 1831년 창설 이래 백병전 상황에서 총검술 외에도 다양한 근접 무기를 실전적으로 운용했다.

【내부자 관찰】 저자가 외인부대에서 받았던 훈련 역시 체력단련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보다, 그것을 극한 상황에서의 실행 능력으로 전환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관찰은 근접무기 운용의 실천적 양상과 개념적으로 연결되는 예시일 뿐, 독자적 근거로 기능하지 않는다.

이 실행능력에 대한 지속적 훈련은 외인부대 복무규율 제5조에 외인부대원은 엄격한 훈련과 더불어 무기를 귀중하게 여기고 정비하며, 신체 단련에 끊임없이 힘써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²⁷⁾

지금까지 살펴본 행동기준·군단 귀속 정체성·전술적 실행능력, 이 세 요소가 결합되어 형성된 것을 이하 ‘카메론 전통’이라 칭한다. 이 전통이 지닌 독자성은, 프랑스 정규군 전통과의 대비를 통해 비교해 볼 수 있다.

〈표 1〉 프랑스 정규군과 외인부대의 전통 비교²⁸⁾

구분	정규군	외인부대
준거전통	혁명 전통 (1793 국민총동원)	카메론 전통 (1863 카메론 전투)
복무동기	국가에 대한 시민적 의무	군단, 동료 귀속감
극한상황 시 행동기준	전술적 합리성 (후퇴와 재편성)	임무 완수 우선 (결전적 저항)
소속의식	프랑스 국가	외인부대 군단
전술적 실행능력	명령복종에 의한 정형화된 훈련	실전적 무기운용술의 축적 (전투 경험자)
구성원	프랑스 국적자	외국 국적자

27) Armée de Terre, 앞의 사이트(2026): 제5조. 원문: “Soldat d’élite, tu t’entraînes avec rigueur, tu entretiens ton arme comme ton bien le plus précieux, tu as le souci constant de ta forme physique.”

28) NEVIASKI, 앞의 글(2010): 98-99(외인부대 항목)에 근거한다. 이 표는 카메론 전통과 대비하기 위해 저자가 구성한 이념형(type idéal)이며, 정규군 항목은 본 연구의 직접적 사료 분석 대상이 아니다.

〈표 1〉에서 프랑스 정규군의 ‘준거전통’과 ‘복무동기’는 1793년 국민총동원령(Levée en masse)에 기반한 ‘시민-군인(Citizen-soldier)’ 모델에 뿌리를 둔다.²⁹⁾

이 전통 아래서 포위나 수적 열세와 같은 극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의 행동기준은 클라우제비츠적 의미의 ‘전술적 합리성’을 적용했다. 즉, 무의미한 전멸을 피하고 전력을 보존하여 추후를 도모하는 후퇴는 전술적 선택지다. 이들에게 군대는 국가라는 상위 목적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³⁰⁾

반면 카메론을 내면화한 외인부대는 포위 같은 극한상황에서도 후퇴하지 않고 ‘결전적 저항’을 택한다. 외인부대원에게는 국가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군단·동료에 대한 귀속감이 복무의 동기이며, 부대 자체가 곧 조국이므로 부대의 명예를 지키며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가 된다.³¹⁾ 이는 ‘소속의식’과도 궤를 같이한다.

‘전술적 실행능력’ 항목이 갈리는 지점은 훈련이 지향하는 목표의 차이다. 정규군에게 전술적 실행능력이란 명령에 대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반복 훈련으로 체화시키는 것이었다.³²⁾

29) FORREST, Alan, 「L'armée de l'an II: la levée en masse et la création d'un mythe républicain」,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n°335(2004): 111-130.

30) Carl von Clausewitz, On War, ed. and trans.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1984), Book 6, Ch.27. 원문: “the preservation of our own military power, and the diminution or destruction of that of the enemy, take precedence in importance over the occupation of territory.”

31) 저자의 분석적 종합으로, NEVIASKI, 앞의 글(2010): 97-99의 외인부대 응집력 분석과 SILVA DA CRUZ, 앞의 책(2023): 416(원저 각주 10 참고)의 ‘faire Camerone = résister jusqu’au dernier’ 정의에 근거한다. 다만 프랑스 유엔 대대 역시 연합 지휘체계에 종속된 조직이었으므로, 상급 지휘 여부와 무관하게 같은 작전적 맥락 안의 행동이면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32) HIPPLER, Thomas, “The French army, 1789-1914: Volunteers, Pressed Soldiers, and Conscripts”, in ZÜRCHER, Erik-Jan(ed.), 『Fighting for a

반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외인부대에게 전술적 실행능력은 무기 운용 자체의 실전적 숙련을 의미했다.

‘구성원’ 항목이 지닌 함의는 이중적이다. 정규군에게 국적의 통일성은 시민-군인 모델을 지탱하는 전제였던 반면, 외인부대에게 국적의 다양성은 오히려 강함의 원천이 되었다.

외인부대의 강함은 구성원의 다양성에서 비롯되며, 각 외인부대원은 자기 민족의 잠재적인 천재성을 가져온다는 원리는³³⁾ 프랑스 유엔 대대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했다. 다양한 인종적·지형적·군부대 출신이 혼재한 대대 안에서 외인부대 출신 대원들은 각자의 전투 경험을 집단의 전투력으로 수렴시키는 다양성에 의한 강함의 모델을 구현했다.³⁴⁾

이상에서 살펴본 행동기준·군단 귀속 정체성·전술적 실행능력, 이 세 요소를 이하 ‘카메론 전통’으로 통칭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 카메론 전통이 어떤 경로를 통해 프랑스 유엔 대대에 도달했는지를 분석한다.

Living: A Comparative History of Military Labour 1500-2000」(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3): 434. 1815년 이후의 프랑스 군대는 엄격한 규율, 복종, 인내심이 필요한 군사 노동, 그리고 느린 진급을 특징으로 했다. 원문: The post-1815 army was the perfect antithesis of this image. Pedantic discipline, subordination, patient military labour, and slow careers were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he new army after Napoleon.

33) NEVIASKI, 앞의 글(2010): 95. 원문: “La richesse et la force de la Légion étrangère proviennent de l’extraordinaire diversité de son recrutement car, potentiellement, chaque légionnaire apporte avec lui le génie de son peuple.” 이질적 국적의 자원자들이 돌아갈 곳 없는 처지에서 군단 귀속 정체성을 형성한 역사적 배경이 되었다면, 동시에 이 다양성 자체는 전술적 실행능력이 개인 차원을 넘어 집단 차원에서 발현되는 또 다른 경로가 되었다.

34) SILVA DA CRUZ, 앞의 책(2023): 179. 원문: Sa combativité devait s’exprimer par sa diversité, ce qui se retrouva à l’échelle des nations participantes de l’ONU.

3. 카메론 전통의 전이 메커니즘

2장에서 분석한 카메론 전통의 세 요소 — 행동기준 · 군단 귀속 정체성 · 전술적 실행능력 — 는 어떤 경로로 1,017명의 프랑스 유엔 대대원에게 도달했는가? 카메론의 정신이 한국 전선에 실제로 존재했음은, 1952년 4월 30일 보렐리(François Borreill) 중령 주관으로 카메론의 날 기념행사가 거행되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³⁵⁾

프랑스 국적 한정 모집으로 대대 내 외인부대 출신은 17명에 불과했고,³⁶⁾ 그중 병사 13명이 제3중대에 집중되어 있었다.³⁷⁾ 대대 전체에서 외인부대와의 직접적 연고를 가진 이 극소수가 부대 전체의 전투 양상을 규정할 수 있었던 메커니즘을, 본 논문은 ‘지휘 · 선택 · 편성’의 세 경로와 ‘매개자 · 결절점’의 두 축으로 설명한다.

가. 지휘 경로 — 매개자로서의 몽클라르

랄프 몽클라르(Ralph Monclar, 본명 Raoul Charles Magrin-Vernerey, 1892~1964)는 16세에 외인부대 입대를 하기 위해 나이를 속였다.³⁸⁾ 이후 생시르 사관학교(École Spéciale Militaire

35) DES VOLLERONS, Edme, 『Le Général Monclar』(Paris: Economica, 2000): 88.

36) MONCLAR, 앞의 강연원고(1953): 6. 외인부대 출신은 중령 2명, 대위 1명, 중위 1명과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병사 13명이라고 밝혔다. 몽클라르는 Colonel 2명이라고 표기했는데, 최고 지휘관인 자신이 Lieutenant-colonel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다른 한명도 Lieutenant-colonel로 유추할 수 있다.

37) HAMBURGER, 앞의 글(2007): 66-67.

38) SILVA DA CRUZ, 앞의 책(2023): 28 ; HAMBURGER, 앞의 글(2007): 67. 이 시기 몽클라르에 대한 외인부대 경력(입대시기, 복무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고

de Saint-Cyr)를 졸업하고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베르됭 · 솜 전투에서 일곱 차례 부상을 입으면서도 현역에 남았다. 종전 후 1924년 제1외인 보병연대(1er REI)를 시작으로 다양한 외인부대 보직을 거쳤으며,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13외인반여단(13e Demi-Brigade de Légion Étrangère, 13e DBLE)을 이끌고 노르웨이 · 북아프리카 · 이탈리아 · 프랑스 전투를 관통했다.³⁹⁾

당시 카메론이 몽클라르에게 하나의 중요한 신념이자 원칙이었음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1940년 4월 30일, 노르웨이로 향하는 영국 해군 수송함 위에서 몽클라르는 카메론의 날 기념식을 거행하려 했으나 영국 해군의 제지로 무산됐다.⁴⁰⁾

그는 같은 해 아프리카 카메룬(Cameroun)에서 『전투 교리문답(Catéchisme du combat)』을 집필했다. 그는 이 교범에서 ‘부대 정신’을 외인부대와 같은 연대들의 전통적 용맹 · 충성 · 군기의 근원으로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적었다.

“죽은 전우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싸우고 있다. 부대의 명예와 그들이 남긴 영광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자존심과 세상의 평판을 걸고 그들과 비교하여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고자 분투한다.”⁴¹⁾

MONCLAR, Roland와의 인터뷰(2026)에서도 확정된 진술이 없는 관계로 두 문헌에서 교차 확인된 ‘외인부대 입대를 위해 나이를 속였다’고만 기술한다.

39) Ordre de la Libération(officiel), 「Raoul Monclar」

(<https://www.ordredelaliberation.fr/fr/compagnons/raoul-monclar>), 접속일 2026년 6월 17일. 군경력 중심의 일대기가 기술됨.

40) DES VOLLERONS, 앞의 책(2000): 88.

41) MONCLAR, Ralph, 『Catéchisme du combat』(Les introuvables de l'art militaire, corpus des écrivains en langue française, n°9)(Paris: CFHM-ISC, 2002): 19. 원문: “Les morts continuent à combattre avec nous. Notre amour-propre et l'opinion publique nous contraignent à rivaliser avec eux pour maintenir intact la renommée du corps et leur héritage de gloire.”

2차대전 종전 후 그의 경력은 인도차이나 전쟁과 직접 맞닿는다. 외인부대 감찰관(Inspecteur de la Légion Étrangère) 직위는 1948년 몽클라르가 임명되며 부활했고 그가 한국전쟁으로 떠난 1950년 다시 폐지됐다. 그 2년 동안 그는 전체 외인부대원 22,500명에 대한 최고 권한자였다.⁴²⁾ 외인부대 감찰관으로서 그는 행정적으로만 부대를 순방한 것이 아니라, 코친차이나·통킹(Cochinchine·Tonkin) 전선에서 베트민을 상대로 직접 전투에 참여했다.⁴³⁾ 즉 몽클라르는 카메론 정신을 교범화하고 전장에서 부대원들에게 직접 전파하는 직무를 수행한 외인부대의 최고급 장교였다.

1950년, 중장으로 진급한 몽클라르는 정년에 도달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중령의 계급으로 프랑스 유엔 대대의 지휘권을 받았다. 한국에서 몽클라르가 카메론의 정신을 프랑스 유엔 대대에 전달한 방식은 거창한 훈시나 제도적인 명령이 아니었다. 그는 사열 중에 대원들을 한 명씩 이름으로 불렀고, 각자의 모국어로 몇 마디를 건넸다. 이 행동은 1951년 지평리 전투가 끝난 다음 날에도 변함없이 이어졌다.⁴⁴⁾

【몽클라르 아들】 “아버지는 독일어를 많이 하셨고, 그다음... 이탈리아어, 그다음... 프랑스어. 영어를 배우셨고, 아랍어도... 베트남어도 배우셨습니다.”⁴⁵⁾

42) SILVA DA CRUZ, 앞의 책(2023): 341.

43) Ordre de la Libération(officiel), 앞의 사이트(2026). 1948~1950년 감찰관 재임 중 코친차이나·통킹 전선 전투 참여.

44) MONCLAR, Fabienne(몽클라르 딸), 『Monclar, le Bayard du XXe siècle』 (Versailles: Via Romana, 2014): 314.

45) MONCLAR, 앞의 인터뷰(2026). 헝가리 태생인 그에게 이 언어들까지 더하면 모두 7개 국어에 이른다.

국적·인종을 초월하여 전우 관계를 규정한 외인부대 복무규율 제2조는 그의 프랑스 유엔 대대 지휘 방침이나 과정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2장에서 살펴본 카메론 전통의 세 요소가 한 인물의 생애 안에서 구현된 것이며, 그 사실이 지휘 경로의 인적 토대가 된 것이다.⁴⁶⁾

나. 선택 경로 - 지원제가 만들어낸 동형성

초기 프랑스 유엔 대대는 순수 지원제로 편성되었다. 본대 병력 1,017명 중 대부분은 제2차 세계대전이나 인도차이나 전쟁 등에서 실전을 치른 베테랑들이었으며, 이러한 높은 숙련도가 소부대 결속력의 강력한 임계점이 되었다.⁴⁷⁾ 이들이 지닌 자발적 참전 동기에 대해 전우회장은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전우회장】“외인부대에 자원하는 사람은 자기 의지와 신념으로 온 겁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입니다. 의무적으로 군대에 오는 징병자와는 마음가짐이 다릅니다.”⁴⁸⁾

이 발언은 군단 귀속 정체성과 직결된다. 자발적 선택으로 전장에 온다는 점에서, 프랑스 유엔 대대원들의 입영 동기는 외인부대원들과 상당히 일치했다. 즉 지원제는 카메론의 정체성과 부합하

46) MONCLAR, 앞의 인터뷰(2026): 05:00-05:55. 질문자: “...장군님이 무언가를 접하게 하셨나요... 외인부대... 백색 케피(군모)...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롤랑 몽클라르: “네, 말씀하신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정체성, 통합해내는 위대한 전통... 외인부대는 사람들을 통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면모는 아들 롤랑의 회고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부친이 외인부대에서 발견한 가치를 ‘정체성’과 ‘다양한 사람들을 통합해내는 위대한 전통’으로 기억했다.

47) QUISEFIT, 앞의 글(2019): 79-81.

48) 안영균, 앞의 인터뷰(2026).

는 동기를 가진 인원들을 선별해서 모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선택 경로는 이 점에서 지휘·편성 경로가 작동할 수 있는 인적 토대를 사전에 마련한 것이기도 하다.⁴⁹⁾

다. 편성 경로 - 제3중대라는 결절점

프리먼 대령은 지평리 전투에서 가장 위험한 서쪽 구역에 프랑스 유엔 대대를 배치했고, 전직 외인부대원 13명이 포함된 제3중대는 중공군의 돌파시도가 집중된 구역에서 가장 치열한 교전을 치렀다.⁵⁰⁾ 이 13명이 ‘옆에서 지켜보는’ 정도를 넘어, 나머지 중대원들과 같은 진지에서 함께 싸우며 행동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다.⁵¹⁾

【내부자 관찰】 외인부대의 훈련은 정신 교육과 내무생활을 통해 카메론의 세 요소를 하나로 결합시키는데, 이렇게 결합된 소수의 행동양식이 소집단 안에서 나머지 구성원에게 전파되어 가는 과정은 저자가 외인부대 복무 중 체감한 바이기도 하다.⁵²⁾

49) MONCLAR, 앞의 인터뷰(2026): 05:55-06:47. 몰랑 몽클라르: “...한국 프랑스 대대에 입대한 젊은 프랑스인들 다수는 (19)39-45년 전쟁 당시 너무 어렸던 사람들이었다... 나이가 차자 그들은 프랑스 대대에 자원입대했다.” 이 채록 구간 전후의 정황을 통해, 저자는 이러한 지원 동기의 배경에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지 못했다는 세대적 부채감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50) MOSSMAN, 앞의 책(1990): 285; BARRON, Leo, 『High Tide in the Korean War: How an Outnumbered American Regiment Defeated the Chinese at the Battle of Chipyeong-ni』(Mechanicsburg: Stackpole Books, 2015): 112-113.

51) SHILS, Edward A. · JANOWITZ, Morris, 『Cohesion and Disintegration in the Wehrmacht in World War II』, 『Public Opinion Quarterly』 vol.12 n°2(1948): 280-315. 이 연구는 소집단(primary group)의 응집력이 전투 저항력의 핵심 변수임을 독일군 포로 인터뷰를 통해 실증했다.

52) 다만 이 관찰은 약 50년의 시대적 간극을 고려하여, 독립적 근거가 아닌 해석적 보강으로만 활용한다.

라. 전이의 세 통로와 종합 - ‘매개자’와 ‘결절점’

세 경로는 상호 보강적으로 맞물렸다. 선택 경로는 카메론 전통의 정체성과 부합하는 동기를 가진 인원들을 사전에 선별했다. 편성 경로는 소수의 외인부대원과 다수의 대대원이 같은 전투 공간을 공유하도록 구조화했다. 지휘 경로는 이 구조적 조건과 잠재적 동기를 명시적인 전투 행동 규범으로 통합했다.

본 논문은 이 구조를 ‘매개자’와 ‘결절점’이라는 두 축으로 개념화한다.⁵³⁾ 전자는 구조적으로 마련된 결절점과 장병들의 잠재적 동기를 명시적인 전투 행동 규범으로 체화시킨 몽클라르의 하향식(Top-down) 지휘 리더십을 가리킨다. 후자는 분산되어 있던 카메론 전통의 요소들이 특정 물리적 공간인 제3중대의 주둔지 안에서 행위자들의 집약적 상호작용을 통해 실체화·시각화되는 전술적 임계 지점, 즉 제3중대의 전직 외인부대원 13명의 상향식(Bottom-up) 작용을 가리킨다.

몽클라르라는 매개자가 없었다면 대대원들의 동기는 하나의 행동 규범으로 통합되지 못했을 것이며, 제3중대라는 결절점이 없었다면 지휘 경로는 형식적인 훈시에 그쳤을 것이다.⁵⁴⁾ 이 두 축의 위계적 상호작용이야말로 카메론 전통이 대대 전체의 전술적 동으로 전이되게 만든 실체적 원천이다.⁵⁵⁾

53) ‘매개자(媒介者)’는 잠재된 전통과 동기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주체를, ‘결절점(結節點)’은 여러 요소가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행동으로 모여 나타나는 지점을 의미한다.

54) 프랑스대대에는 몽클라르 이외에도 외인부대 출신 중령 1명, 대위 1명, 중위 1명이 있었는데, 이들 역시 각각의 소대나 중대에서 결절점 또는 지휘 경로의 보조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도 크다.

55) 본 연구가 제시하는 매개자-결절점 모델은 쌍터널·지평리에서 관찰되는 소수의 상징적 발화·행동이 부대 전체의 반복적 행동 패턴과 시간적으로 부합하는 것에 기반한 해석이다. 따라서 본 모델의 설명력은 ‘카메론이 유일한 원인이었다’는 결정론적 주장이 아니라, ‘카메론 전통의 틀을 통해 프랑스 유엔 대대의 반복적 행동 패턴을 설명할 수 있다’는 해석적 차원으로 서술한다.



〈그림 1〉 카메론 전통의 요소별 전이 메커니즘

〈그림 1〉은 카메론 전통의 3대 요소(행동기준·군단 귀속 정체성·전술적 실행능력)가 세 가지 경로를 통해 프랑스 유엔 대대 내부로 유입·확산되어 네 전투에서 순차적으로 발현된 양상을 도식화한 것이다. 세 경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제 기반의 동형적 동기를 통한 선택 경로. 둘째, 전직 외인부대원 13명을 상향식 결절점으로 하는 편성 경로. 셋째, 외인부대 감찰관 출신 몽클라르를 하향식 매개자로 하는 지휘 경로. 본 도식은 하향식 매개자(지휘 경로)와 상향식 결절점(편성 경로)의 위계적 상호작용이, 선택 경로를 통해 형성된 인적 토대 위에서, 대대 전체의 독자적 전투력을 제도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4. 주요 전투에서의 카메론 발현 양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카메론 전통을 구성하는 세 요소(군단 귀속 정체성·행동기준·전술적 실행능력)는 지휘관 몽클라르라는 ‘매개자’와 제3중대라는 ‘결절점’을 축으로 하는 전이 메커니즘(Transmission Mechanism)의 세가지 경로를 통해 프랑스 유엔 대대 내부로 유입·작동할 수 있는 토양을 갖추었다. 본 장에서는 이 메커니즘을 통해 이식된 무형의 카메론 전통이 한국전쟁 초기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반복 호출(Recall)되었는지를 네 차례의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시간순으로 살펴본다.

가. 원주(1951년 1월)

프랑스 유엔 대대가 한반도에 도착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 원주에서 첫 실전을 치렀다. 3중대의 르뵈리에(Lebeurrer) 중위가 이끄는 소대가 착검한 채 돌격하여 적군 1개 중대를 격파했다. 미군 관찰자들은 이를 ‘프랑스군이 적보다 더 반자이 돌격을 했다’고 표현했고, 이 보도는 태평양판 성조지 1면을 장식했다.⁵⁶⁾ 이 전투가 ‘최초의 호출’인 이유는 두 가지다. 포위 상황이 아니

56) 「French forces out-banzai enemy」, 『Stars & Stripes』(Pacific edition), 1951년 1월 14일, vol.7, no.14. 같은 사건(원주 전투)을 다룬 별도의 기사로 「French Bayonet Charge Routs Reds Near Wonju」, 『Stars & Stripes』(Pacific edition), 1951년 1월 15일도 있다. 두 기사 모두 QUISEFIT, Laurent, 「The French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and the Establishment of a ‘Path of Memory’ in South Korea」, 『Societies』 vol.3 n°4(2013): 431-432, 각주 36, 37 및 Figure 1·2(신문 지면 이미지)에서 확인. <http://doi.org/10.3390/soc3040427>, 접속일: 2026년 7월 4일.

었고 명령에 의한 것도 아니었으며 자발적으로 착검하고 돌격했다. 이 백병전은 이후 프랑스 유엔 대대를 유명하게 만든 상징적 장면이 되었고, 중군기자들의 목격담을 통해 대대의 신화와 전통의 일부로 빠르게 자리잡았다. 프랑스 병사들은 교전 전 자연스럽게 대검을 착검했으며, 실제 백병전 국면에서 이를 활용했다. 리지웨이 장군은 이 장면에 깊은 인상을 받아 이후 ‘대검의 정신’을 미군 전체에 확산시키려 했을 정도였다.⁵⁷⁾

원주에서의 착검 역습은 르뵈리에 소대뿐만 아니라 제1중대 소속 래넬(Lainel) 중위와 르루아르(Le Loire) 하사에 의해서도 각기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 사건이 발생한지 약 2년 후인, 1952년 11월부터 프랑스대대의 부대대장으로서 복무한 알렉상드르(Alexandre) 소령은 이를 제3중대의 사례와 더불어 ‘대대’가 ‘세레’를 받았을 뿐 아니라 즉시 그 자신의 ‘전설’을 갖게 되었다고 기록했다.⁵⁸⁾ 이 표현들은 이 행동들이 단순한 전과 기록이 아니라, 대대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미 하나의 기원 서사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카메론 전통이 대대 전체에 공유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전투에서는 카메론 전통의 세 요소 중 ‘전술적 실행능력’이 우선적으로 가시화되었으며, ‘행동기준’의 징후가 처음 관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카메론이라는 명칭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르뵈리에 소대의 착검 돌격을 카메론 전통의 발현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후속 전투(쌍터널의 명

57) HAMBURGER, 앞의 글(2007): 69.

58) ALEXANDRE, Colonel, “Le Bataillon français de l’ONU en Corée, décembre 1950-novembre 1953”, 『Revue historique de l’armée,』 n°4(1971): 81-109. 원문: “les contre-attaques à la baïonnette du Lieutenant Lainel, du sergent Le Loire, et de la 3e Compagnie, ont un retentissement considérable. Le Bataillon est non seulement «baptisé» mais d’emblée, il a sa légende.”

명, 지평리의 통합적 발현)와의 패턴적 연속성을 고려할 때, 원주는 카메론과 동형의 행동 양식이 처음 가시화된 전투로 볼 수 있다.⁵⁹⁾

나. 쌍터널(1951년 2월 1~2일)

미 제23보병연대 3대대와 프랑스대대가 중공군 약 10,000명과 교전한 이 전투에서, 상당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아군 전사 45명, 부상 207명, 실종 4명의 손실로 중공군 사상자가 3,600여 명으로 추산(확인된 중공군 시신 1,300구)되는 전과를 올렸다.⁶⁰⁾

이 전투에서 결정적인 것은 의식(意識)이었다. 두 차례 부상을 입은 외인부대 하사가 이 상황을 ‘카메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표현한 것이다. 원주에서 호출된 행동 양식이, 쌍터널에서는 병사 자신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명됐다.

쌍터널에서 카메론을 호출한 것은 그 하사뿐만이 아니었다. 언론 보도는 바세레스(Baxerres) 중위가 ‘카메론을 하자’고 외쳤으며, 르 미르(Le Mire) 소령의 끝까지 버티라는 명령에 따라 보르그(Von der Borgh) 하사와 포코네(Fauconnet) 하사가 백색군모(Képi blanc)을 착용한 채 전투에 임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⁶¹⁾

백색군모는 외인부대의 부대정신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군모로, 이를 전투 중에 착용했다는 것은 ‘레지오네르로서 싸운다’는 의식적 선택의 표현으로 읽을 수 있다.⁶²⁾ 복수의 인원이 동일한 언어

59) 착검 돌격은 일반적인 공격적 보병전술로도 설명 가능하며, 이를 카메론의 초기 발현으로 해석하는 것은 후속 전투(쌍터널의 명명, 지평리의 통합적 발현)와의 패턴적 연속성에 근거한 사후적 해석이다. 이는 3장에서 밝힌 전이 메커니즘 모델 자체의 불확실성과는 별개로, 개별 사례의 소급적 분류에 관한 문제다.

60) MOSSMAN, 앞의 책(1990): 249.

61) SHD, GR7U296, dossier 14 Presse française 1951-1952, 「Opinions sur la France」: 2.

62) PORCH, 앞의 책(1991): 374. 193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기념일, 외인부대 분열

와 상징을 공유했다는 사실은, 카메론이 부대 안에서 실제로 통용된 공유 언어였음을 보여준다. 이 전투에서는 카메론 전통의 세 요소 중 ‘군단 귀속 정체성’이 집단 언어의 형태로 명시적으로 발현되었다.

다. 지평리(1951년 2월 13~16일)

중공군 5개 사단이 미 제23보병연대와 프랑스 유엔 대대를 포위했다.⁶³⁾ 프리먼 대령은 서쪽 전 구역을 프랑스 대대에 배정했고, 그중 가장 위험한 북단에 제3중대, 즉 카메론의 결절점이 배치됐다.⁶⁴⁾ 이 결절점은 방어에만 머물지 않고, 소규모 병력을 차출해 슈미트 고지 탈환을 시도할 만큼 능동적으로 작동했다.⁶⁵⁾ 카메론적 행동기준이 수세가 아닌 공세로도 발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월 13일 밤 전투가 시작됐다. 외인부대원들은 교전 전부터 총검을 착용했고, 가진지가 돌파될 때마다 착검 역습으로 응수했다. 백병전에서는 총검 외에도 도끼·곤봉·마체테 등의 근접전용 무기가 사용됐다.⁶⁶⁾ 이는 앞에서 살펴본 외인부대 전사를 거치며 축

대가 처음으로 흰 군모(képi blanc)를 착용하고 상젤리제 거리를 행진했다. 오늘날 자원 입대자는 기초 행군훈련을 마치면 준종교적 의식을 통해 흰 군모를 수여받으며, 그 뒤에는 부대 전체가 함께하는 축하 자리가 이어진다.

63) HAMBURGER, 앞의 글(2007): 72. 중국어를 구사하는 프리먼 대령이 프랑스군이 붙잡은 중공군 포로 14명을 심문한 결과, 총 5개 사단 출신의 5개 분견대, 약 30,000명의 병력에 공격받았음을 확인해 주었다.

64) BARRON, 앞의 책(2015): 146-147.

65) BARRON, 앞의 책(2015): 203-205.

66) HAMBURGER, 앞의 글(2007): 72. 프랑스 유엔 대대는 적의 공격이 시작되면 미리 구축해 둔 위계 진지를 비우고 주 진지로 철수하여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이후 전개된 근접전에서 프랑스 유엔 대대원들은 총검뿐만 아니라 도끼, 곤봉, 마체테(정글도) 등 다양한 근접 무기를 활용해 맹렬한 역습을 감행했으며, 중공군은 이러한 가차 없는 백병전에 크게 압도당했다.

적된 전술적 실행능력의 구체적 발현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 유엔 대대가 포위된 동안, 카메론의 정신이 실제 전투 행동으로 나타났다. 전술적 철수가 논의될 수 있는 극한 상황에서도 후퇴 대신 즉각 착검 연습을 감행하며 진지를 사수한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임무를 완수한다는 ‘행동기준’의 발현이다. 여기에 더해, 도끼·곤봉·마체테 등 다양한 도구를 백병전에 투사해 승리로 이끈 구체적 거동은, 오랜 전사(戰史)를 통해 축적된 ‘전술적 실행능력’의 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유사한 조건에서 포위된 다른 부대와 비교될 수 있다. 1951년 4월 임진강 전투에서 영국군 글로스터셔 연대(Gloucestershire Regiment) 제1대대는 중공군에 포위되어 사흘간의 교전 끝에 750명 중 약 530명이 전사·포로가 되는 사실상 전멸의 피해를 입었다.⁶⁷⁾

지평리의 프랑스 유엔 대대가 최후까지 사수와 착검 연습을 반복했던 것과 달리, 설마리의 글로스터 대대는 철수 명령 전달 실패와 포위망 조기 차단이라는 상황적 요인 속에서 다수가 항전 대신 포로로 남는 결과에 이르렀다.⁶⁸⁾

67) MOSSMAN, 앞의 책(1990): 428-429. 지평리 전투(1951년 2월)와 임진강 설마리 전투(1951년 4월)는 작전 시기와 지형, 그리고 지원 화력 여건의 결정적 차이로 인해 단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첫째, 지형적 측면에서 지평리는 사수 전술이 용의한 내륙 분지였던 반면, 임진강은 적의 도하 중심축에 노출된 고립 지형이었다. 둘째, 화력 지원 측면에서 지평리는 강력한 미 포병 및 미 공군의 항공 지원을 실시간으로 보장받았으나, 설마리의 영국군 글로스터(Glostesters) 연대는 철수 명령 이행 실패 및 포위망 조기 차단으로 인해 외부 화력 자산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다.

68) MOSSMAN, 앞의 책(1990): 412-422. 본 논문이 주목하는 지점은 승패라는 결과가 아니라, 포위라는 동형(同型)의 상황에서 나타난 대응 양식의 질적 차이이다. 이 대비는 카메론이 내면화된 부대와 그렇지 않은 부대가 동일한 범주의 극한 상황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시적 대비로 한정하여 사용한다. 다만 이 해석의 차이는 결과의 우열을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 앞에서 제시한 제도적 전이 메커니즘이 실제 전장의 의사결정 양식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로 읽어야 한다.

라. 단장의 능선(1951년 9~10월)

단장의 능선 전투(1951년 9~10월), 931고지와 851고지 탈환 임무에서 미 제23연대에는 19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프랑스대대는 지원병 46명(사망 42명, 실종 4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편 북한군에는 약 10,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⁶⁹⁾

단장의 능선 전투가 지니는 군사사적 의미는 앞서 살펴본 세 차례의 전투와 궤를 달리한다. 당시 대대 병력의 상당수가 지평리 전투 이후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퇴가 아닌 임무 완수를 선택하는 전투 양상이 유지되었다. 이는 ‘카메론적 행동기준’이 부대 고유의 체계 내에 안착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 시기 역시 지휘 경로의 핵심 매개자인 몽클라르가 여전히 전장을 직접 관장하고 있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그는 1951년 10월, 851고지와 931고지 (단장의 능선, Crève-cœur) 탈환 작전을 지휘했다.⁷⁰⁾

따라서 단장의 능선 사례가 실증하는 바는 ‘인적 구성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유지된 행동 양식의 전술적 지속성’이지, 매개자가 완전히 부재한 상태에서의 ‘독립적인 제도적 자립성’까지는 확장하지 아니한다. 이 전투에서는 카메론 전통의 세 요소 중 ‘행동기준’, 즉 임무 완수를 위한 결전적 저항이 인적 구성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양상이 확인된다.

앞서 제시한 구조적 비교를 종합하면, 원주에서 행동으로 처음

69) 프랑스 유엔 대대 참전 협회(ANAAFF.ONU), 『Le Bataillon Français de l'ONU en Corée』(파리: ANAAFF.ONU, 2018) (https://bataillon-coree.fr/images/PUBLICATIONS/COREE/livre_bf_onu_2018.pdf), 접속일 2026년 7월 4일: 24.

70) Chemins de mémoire(Ministère des Armées), 「Raoul Monclar」(<https://www.cheminsdememoire.gouv.fr/fr/raoul-monclar>), 접속일 2026년 6월 17일. 원문: “Monclar... se porte volontaire pour prendre la tête du bataillon français de Corée qu'il dirige jusqu'en 1951.”

나타난 것이, 쌍터널에서 그 출처와 함께 명명되었고, 지평리에서 세 요소가 동시에 발현되어 변별적 결과를 낳았으며, 단장의 능선에서는 인적 교체에도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네 전투에 걸친 반복은, 카메론을 내면화한 병사에게 포위된 1863년 멕시코의 재현 기회로 다가왔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카메론은 1863년 멕시코의 단발적 사건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1951년 한국의 네 전장에서 반복적으로 호출된 행동기준으로 작동했던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5. 결론

카메론의 전통은 세 요소로 분해된다. 1863년 카메론 전투에서 기원한 ‘행동기준’, Legio · patria · nostra의 ‘군단 귀속 정체성’, 외인부대 전사를 거치며 축적된 ‘전술적 실행능력’이다. 이 세 요소는 1948~1950년 외인부대 감찰관으로서 22,500명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최고 권한자였던 몽클라르(매개자)를 통해 프랑스 유엔 대대에 도달했다. 지원제 편성과 제3중대라는 결절점이 이 카메론 전통의 전파가 작동할 토양을 제공했고, 지휘 · 편성 · 선택이라는 세 경로가 13~17명의 소수를 1,017명 전체로 연결했다(3장). 그 결과 원주에서 처음 가시화되고, 쌍터널에서 그 출처와 함께 명명되고, 지평리에서 세 요소가 동시 발현되었으며, 단장의 능선에서 인적 교체에도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4장).

리치웨이 장군의 미국과 프랑스가 전사에서 배출한 최고의 군인들이라는 평가는 본 논문의 분석이 수렴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 평가에서 프랑스 유엔 대대원들은 지원제로 선발되어 카메론에 부

합하는 동기를 가진 자원자들이었고, 몽클라르를 통해 그것을 전수받은 병사들이었으며, 쌍터널에서 스스로 카메론을 의식하고 지평리에서 총검을 먼저 착용한 자들이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쌍터널에서 카메론이 한 병사의 개인적 표현이 아니라 복수 인원이 공유한 집단 언어였다는 사실이며, 몽클라르는 1940년부터 이미 카메론 전통을 원칙으로 실천한 인물이었다⁷¹⁾

이는 프랑스군 내부에서도 외인부대가 1863년 이래 축적해 온 카메론이 한국 전선에서 발현된 것으로 해석되며, 한국전쟁 프랑스 참전을 분석할 때 프랑스군이라는 단일한 범주 안에서도 그 구성과 전통의 내적 다양성을 구분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세 가지다. 첫째, 분석의 출발점이다. 본 논문은 카메론이라는 분석적 개념을 외부에서 도입한 것이 아니라, 병사 자신이 1951년 전장에서 실제로 사용한 단어에서 출발했다. 둘째, 전이 메커니즘의 구체화다. ‘소수가 다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본 논문은 ‘지휘·편성·선택’이라는 세 경로와 ‘매개자-결절점’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프랑스 유엔 대대뿐 아니라 특정 전투문화가 두드러진 다른 부대의 분석에도 적용 가능한 틀이다. 셋째, 사료의 발굴이다. 본 논문은 ‘1953년 몽클라르 강연 원고(국가보훈부 소장)’와 ‘몽클라르 아들’의 구술을 국내 군사사 논문에서 처음으로 본격 활용했다. 이 자료들은 몽클라르의 지휘철학이 교범으로 정식화되고 전장에서 구현된 과정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1차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한편, 카메론의 흐름이 1951년에서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다. 오늘날 프랑스에는 외인부대 한인전우회가 존재하며, 그 초기 운

71) 다만 이 시기까지도 몽클라르가 전장에 현존했다는 점에서, 카메론적 행동 양식의 제도적 자립성 여부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영진에는 외인부대 출신 한국전 참전용사가 명예회장으로 참여한 기록이 있다.⁷²⁾

나아가 본 연구가 제시하는 매개자-결절점 모델은 역사학적 실증을 넘어 정신전력 연구에도 함의를 갖는다. 소수의 행동양식이 집단 전체의 응집력으로 전이되는 과정, 그리고 지휘 리더십이 그 전이를 촉진하는 방식은 정신전력의 핵심 구성요소인 집단 응집력과 지휘 요인의 상호작용을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본 연구가 다룬 카메론 전통이라는 제도화된 틀이 몽클라르의 『전투 교리문답』을 통해 어떻게 정신전력의 이론으로 정식화되었는지에 대한 본격적 분석은 별도의 후속 연구로 남긴다.

본 연구가 진행된 2026년은 한불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전쟁에서 발현된 ‘카메론’이 75여 년의 시차를 두고 한불 군사 교류의 한 단면으로 재조명되는 것은, 양국 관계가 외교·경제 영역을 넘어 한국전쟁이라는 공유된 희생의 기억 위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

72) 외인부대 한인전우회(Amicale des Légionnaires d'Origine Coréenne), “운영진 회의록”(Extrait du procès-verbal du bureau directeur), 2006년 10월 7일. “M. BELVAL André : Président d'Honneur”로 기재되어 있다.

〈참고문헌〉

1. 1차 사료

- 외인부대 한인전우회(Amicale des Légionnaires d'Origine Coréenne). “운
영진 회의록”(Extrait du procès-verbal du bureau directeur).
2006년 10월 7일.
- 프랑스 유엔 대대 참전 협회(ANAAFF.ONU). 『Le Bataillon Français de
l'ONU en Corée』. (파리: ANAAFF.ONU, 2018). (접속일: 2026년
7월 4일). [https://bataillon-coree.fr/images/PUBLICATIONS/
COREE/livre_bf_onu_2018.pdf](https://bataillon-coree.fr/images/PUBLICATIONS/COREE/livre_bf_onu_2018.pdf).
- MONCLAR, Ralph. “Conférence Monclar”(몽클라르 중장 강연 원고). 1953
년 3월 16일. 롤랑 몽클라르(Roland Monclar) 기증, 유엔 프랑스 한
국전쟁참전협회 소장. 국가보훈부 유엔참전용사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
번호 2024001400. (접속일: 2026년 6월 21일). [https://unarchives.
mpva.go.kr/arch/detailDoc/2024001400/docP1](https://unarchives.mpva.go.kr/arch/detailDoc/2024001400/docP1).
- Service Historique de la Défense(SHD), GR7U292, Rapports d'opérations
des Combats de Chipyeong 1951, “Affaire du 26 janvier 1951”.
- Service Historique de la Défense(SHD), GR7U296, dossier 14 Presse
française 1951–1952, “Opinions sur la France”.

2. 문헌

- ALEXANDRE, Colonel. “Le Bataillon français de l'ONU en Corée,
décembre 1950–novembre 1953”. 『Revue historique de l'armée』
n°4(1971): 81–109.
- BARRON, Leo. 『High Tide in the Korean War: How an Outnumbered
American Regiment Defeated the Chinese at the Battle of
Chipyeong-ni』. (Mechanicsburg: Stackpole Books, 2015).
- BERGOT, Erwan. 『Bataillon de Corée: Les volontaires français
1950–1953』. (Paris: Presses de la Cité, 1983).

- BOUTTIN, Jacques. 『Bataillon Monclar』. (Paris: Éditions du Scorpion, 1961).
- CLAUSEWITZ, Carl von. 『On War』. ed. and trans.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1984).
- DES VOLLERONS, Edme. 『Le Général Monclar』. (Paris: Economica, 2000).
- FORREST, Alan. “L’armée de l’an II: la levée en masse et la création d’un mythe républicain”.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n°335(2004): 111–130. <https://doi.org/10.4000/ahrf.1385>.
- HAMBURGER, Kenneth E. 『Leadership in the Crucible: The Korean War Battles of Twin Tunnels and Chipyeong-ni』. (College Station: Texas A&M University Press, 2003).
- HAMBURGER, Kenneth E. “Le rôle du ‘Bataillon de Corée’ dans la guerre de Corée”. trad. Magalie Martin–Arellano. 『Revue historique des armées』n°246(2007): 65–76.
- HIPPLER, Thomas. “The French army, 1789–1914: Volunteers, Pressed Soldiers, and Conscripts”. in ZÜRCHER, Erik–Jan(ed.). 『Fighting for a Living: A Comparative History of Military Labour 1500–2000』.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3): 419–446.
- MONCLAR, Fabienne. 『Monclar, le Bayard du XXe siècle』. (Versailles: Via Romana, 2014).
- MONCLAR, Ralph. 『Catéchisme du combat』(Les introuvables de l’art militaire, corpus des écrivains en langue française, n°9). (Paris: CFHM–ISC, 2002).

- MOSSMAN, Billy C.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0).
- MOUSSET, Paul. 『Parallèle 38』. (Paris: Gallimard, 1951).
- NEVIASKI, Alexis. “La cohésion légionnaire, un défi toujours actuel”. 『Guerres mondiales et conflits contemporains』n°237(2010): 95-102.
- PORCH, Douglas. 『The French Foreign Legion: A Complete History』. (New York: Macmillan, 1991).
- QUISEFIT, Laurent. “The French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and the Establishment of a ‘Path of Memory’ in South Korea”. 『Societies』vol.3 n°4(2013): 427-444. <http://doi.org/10.3390/soc3040427>.
- QUISEFIT, Laurent. “Les volontaires du Bataillon français de Corée: profils et engagements”. in CHABANOL, Elisabeth(dir.). 『Souvenirs de Séoul: Destins croisés France-Corée de 1886 aux années 1950』. (Paris: L’Atelier des Cahiers/EFEO, 2019): 74-97.
- ROSSI, Michel. 『Avoir vingt ans à Chipyong-Ni』. (Courbevoie: Remicom, 1994).
- ROY, Jules. 『La bataille dans la rizière』. (Paris: Gallimard, 1953).
- SHILS, Edward A. · JANOWITZ, Morris. “Cohesion and Disintegration in the Wehrmacht in World War II”. 『Public Opinion Quarterly』vol.12 n°2(1948): 280-315.
- SILVA DA CRUZ, Amal. “De la robustesse du combattant: le bataillon français de l’ONU en Corée entre 1950 et 1953”. Université Paris 1 Panthéon-Sorbonne 박사학위논문, 2023. [HAL: tel-04166876]

3. 웹자료

- Armée de Terre(official). “Code d’honneur de la Légion étrangère”.
(접속일: 2026년 6월 17일). <https://www.terre.defense.gouv.fr/legion-etrangere/presentation/code-dhonneur-legion-etrangere>.
- Chemins de mémoire(Ministère des Armées). “Raoul Monclar”. (접속일: 2026년 6월 17일). <https://www.cheminsdememoire.gouv.fr/fr/raoul-monclar>.
- CNRTL(Centre National de Ressources Textuelles et Lexicales). “légionnaire”. 『Dictionnaire de l’Académie française』(9e édition).
(접속일: 2026년 6월 17일). <https://www.cnrtl.fr/definition/l%C3%A9gionnaire>.
- Ordre de la Libération(official). “Raoul Monclar”. (접속일: 2026년 6월 17일). <https://www.ordredelaliberation.fr/fr/compagnons/raoul-monclar>.
- U.S. Army. “Guide to Oral History”. (접속일: 2026년 6월 30일).
<https://history.army.mil/Research/Reference-Topics/Army-Guide-to-Oral-History/>.

4. 신문기사

- “French Bayonet Charge Routs Reds Near Wonju”. 『Stars & Stripes』
(Pacific edition, 1951년 1월 15일).
- “French forces out-banzai enemy”. 『Stars & Stripes』(Pacific edition,
1951년 1월 14일), vol.7, no.14.
- RIDGWAY, Matthew B. “Text of Gen. Ridgway’s Report to Congress
on Korea and Japan”. 『The New York Times』(1952년 5월 23
일). (접속일: 2026년 6월 30일). <https://www.nytimes.com/1952/05/23/archives/text-of-gen-ridgways-report-to-congress-on-korea-and-japan.html>.

5. 증언

안영균. 외인부대 한인전우회 제11대 회장. 구술 인터뷰. 파리 포르 드 노정,
외인부대 총회, 2026년 6월 10일.

MONCLAR, Roland. 구술 인터뷰. 파리 16구 자택, 2026년 6월 11일.

〈Abstract〉

An Analysis of the Combat Effectiveness of the French Battalion in the Korean War

- Focusing on the Manifestation of the Foreign Legion
Tradition “Camerone” -

Choi, Hae-wook

This paper analyzes the institutional sources of combat effectiveness of the French UN Battalion (BF/ONU) in the Korean War (1950-1953). Prior scholarship attributed BF/ONU's performance to General Monclar's leadership and volunteer morale, yet why these soldiers chose bayonet charges over surrender when surrounded has remained unexamined.

Taking as its point of departure a sergeant's testimony at Twin Tunnels (1951)—“there was nothing left but to do Camerone”—the paper analyzes four dimensions: the three constituent elements of ‘Camerone’ (the 1863 code of conduct, the identity of ‘Legio patria nostra,’ and accumulated combat proficiency); the transmission pathway through Monclar as Inspector of the Foreign Legion (1948-1950); the transmission mechanism anchored in volunteer-based formation and 13 former legionnaires of the 3rd Company as a condensation point; and the recurrence of Camerone across four battles: Wonju, Twin Tunnels, Chipyong-ni, and Heartbreak Ridge.

The research draws on SHD archival sources, Monclar's *Catéchisme du combat* (2002), and oral interviews (June 2026) with the President of the *Amicale des Légionnaires d'Origine Coréenne* and Roland Monclar, son of General Monclar. The analysis concludes that BF/ONU's combat effectiveness reflects not a general French military tradition but the manifestation of *Camerone* accumulated since 1863—a living code repeatedly activated across four battlefields. The paper's contribution lies in deriving its framework from the soldiers' own language and modeling transmission through three channels (self-selection, structure, command) and the condensation point-activator model.

Key Words : Korean War, French UN Battalion (BF/ONU), French Foreign Legion, Battle of Chipyeong-ni, *Camerone*

원고투고일 : 2026.07.08. 심사수정일 : 2026.08.24. 게재확정일 : 2026.09.09.